

# 전주교대 예비교원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교육청과 협업 따라 초교에 보조강사 지원

학습더딤학생 집중지원·교원들의 현장경험 제공

전라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주교대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예비교원 기초학력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17일, 전북도 교육청-전주교육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강사제는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운영되는 정책이다. 현재 전주, 군산, 익산지역 37개 초

등학교가 총 90명의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강사를 신청하였으며, 6월 중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수강신청을 받아 운영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이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전주교육대학교 예비교원 1인당 매일 2시간씩 3주에 걸쳐 총 30시간의 기초학력 맞춤형 학습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강사 활동은 주로 교육과정 시간 내에 운영되며, 기초학습(3R)지도·학습코칭·

학생상담 등 학생 특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조강사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예비교원들의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강신청 완료 후인 6월 중순에 사전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강사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정책의 일환이며 학습더딤학생 집중 지원과 예비교원의 현장경험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더딤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전주비전대학교 유니테크 듀얼공동훈련센터 S등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는 2017년도 유니테크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유니테크(Uni-Tech) 사업은 고교-전문대-기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취업 보장형 산학연계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 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할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에서 평가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7년도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난 19일 결과를 발표하고 31일에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번 평가는 총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전주비전대를 포함한 4개 대학이 S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

평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종합해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70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60점 이상 70점 미만), D등급(60점 미만)으로 평가하였으며, S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운영비 및 시설장비의 20%가 추가지원 된다. /기동취재반



전북지역 시각장애 거점 지원센터인 전북맹아학교가 지난 5일 '스쿨 오픈 데이(School Open Day)' 행사를 열었다.

## 전북맹아학교 '스쿨 오픈 데이' 성료

저시력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 체계 강화

전북지역 시각장애 거점 지원센터인 전북맹아학교가 지난 5일 '스쿨 오픈 데이(School Open Day)' 행사를 열었다.

저시력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수법과 보조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문적 지원을 위한 교육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맹아학교 교감이자 시각장애 거점 지원센터장인 정문수 교감은 "시각장애 교육은 특수교육 전공자라 하더라도 접할 기회가 부족해 이해도가 매우 낮은 영역"이라며 "지금도 시각적 어려움으로 학습의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일반교육현장에서 단순히 눈이 나쁜 아이로 간주돼 학습의 곤란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정 교감은 "교정시력 0.3 이하라면 전문적 배려 없이는 일반교육환경에서 학습이 곤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학습 부진과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학생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기준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시력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조기발견과 전문적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요구가 합쳐져야 통합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다양한 시각관련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하고, 시각장애 특성 검사와 적절한 교육여건과 시각적 학습보완 방법 등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기동취재반

## 전주기전대,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선도 사업' 선정

지역 거점 문화관광형 청년특화 창업 토탈지원 전진기지 구축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용위기지역 정부추경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주기전대학은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선도사업'을 수행한다.

전주기전대학은 외식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화된 실습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생을 지원한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며,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 멘토 지원단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갖춘 창업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기본창업교육인 창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경영교육을 시작으로 창업특화 레시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후 작품전시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상위 4명의 교육

생에게는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창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사후관리(컨설팅, 마케팅, 자금 창업공간)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장(조덕현)은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청년들에게 창업교육지원, 실전 레시피 개발, 창업컨설팅, 창업 장소지원, 성공창업자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도내 114개 고교서 2만1418명 응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6월 모의평가가 7일 도내 114개 고교와 6개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평가는 고3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적응력 향상과 난이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

도내에서는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2만1418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모의평가는 오는 11월15일 치르는 수능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방식으로

치러진다. 오전 8시40분부터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된다.

문제 및 정답은 종종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www.ebs.c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성적은 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해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학교 보관용 성적일람표를 제공하고 개인별 성적지표는 6월28일 오전 9시부터 수험생에게 배

부된다. 한편 이날 고2,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1학년 106개 고교에서 1만 6816명, 2학년 108개 고교에서 1만 8665명이 응시, 수능시험 적응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고3 학생의 이번 수능 6월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수능시험을 위한 난이도 조절을 위한 것이므로 고3 학생들은 시험 후 문항분석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밝혔다. /기동취재반

## 군산대 '2018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군산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2018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쌀을 활용한 아침 간편식을 개발하여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 결식이 많은 학생들의 아침밥 섭취를 유도하고 쌀 소비도 촉진시켜 농가 인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이다.

군산대학교는 교내 입주 식당에 위탁해 4,000명 이상의 재학생에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게 된다. 사업 기간 동안 4000명 이상에게 40회 이상 식사가 제공돼 총 480kg의 쌀이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곽병선 총장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평소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사업운영을 통해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는 9월부터 총 40회 이상 4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식사를 제공할 계획"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증대되고, 체력증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는 올해 4월에도 중간고사 기간 동안 조식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5000원 상당의 간편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즐거운 대학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군산대, 35사단 전역예정자 위한 청년고용정책 홍보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5일 임실군 소재 35사단 충경선병 교육대를 방문하여 35사단 전역예정자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여 전역을 앞둔 청년들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접근법을 통해 미래설계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 진로 및 취업 컨설턴트 3명과 외부 강사 1명이 초청되어 전역예정자 100여명에게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고용다달돌,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전역 후 이용 가능한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동취재반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